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11년 12월 15일

제 4 호

• 발행인 : 김동건 • 편집장 : 황인우
• 주소 : 135-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6 포스코대사 1304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2-784-5040 / 070-7501-3842

2011 한국아나운서 대상 시상식 열려

대상 이재용(MBC) 클럽상 정석문(SBS) 차미연(MBC)
장기범상 김진형(KBS 전주) 기독교방송(CBS) 아나운서팀 수상



최기환(SBS), 손정은(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목동 현대백화점에서 열린 시상식

해 배덕환, 정경래, 이후재, 이혜옥, 정도영, 김상준, 박민정, 채영신, 이형균, 원종배, 황인우, 성경환, 최선규, 전찬희 회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어문기자협회 이경우(서울신문) 회장과 2006년도 장기범상 수상자였던 우제근 사무국장, 한국카메라기자협회 태양식(SBS)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최기환(SBS), 손정은(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대상은 이재용(MBC) 아나운서가 받았다. 그리고 라디오진행상 김성운(febc), TV진행상 홍원기(OBS), 스포츠캐스터상 표영준(KBS), 지역상은 최영실(청주 CBS), 장영희(부산 febc)가 받았다. 장기범상은 김진형(KBS 전주)과 기독교방송(CBS) 아나운서팀이, 아나운서클럽상은 정석문(SBS), 차미연(MBC) 아나운서가 수상했다. 관련 기사 2면

진행상-TV 홍원기(OBS) R 김성운(febc)
스포츠캐스터상-표영준(KBS)
지역상-최영실(청주CBS) 장영희(부산 febc)
배덕환 이후재 정도영 김상준 회원 등 참석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주최 제17회 '2011 한국아나운서 대상 시상식'이 12월 2일(금) 오후 7시 서울 목동 현대백화점 7층 토파르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임국희, 김규홍, 차인태, 이계진 부회장을 비롯

바른말협의회, 하반기 사회공익활동 활발히 펼쳐

일산 '중산동주민센터'에 <올바르게 말하기> 강좌 개설

대학 강의, 대학 방송국원 화법훈련, 주민센터 특강 등 맞춤 강의 실시

우리말 순화를 위한 <바른말실천운동 시민협의회>의 사회공익활동이 올 하반기에도 활발히 펼쳐졌다. 2009년 3월부터 '은혜로운 교회'에서 일산 중산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 1회 실시한 <말 잘하기 교실>이 지난 10월로 막을 내리고, 10월 10일부터는 이팔용 회원이 '중산동주민센터'에 <올바르게 말하기> 강좌를 개설했다.



경기도 성남 가천대학교 경원캠퍼스 신문방송학과와 10월 17일과 19일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음성언어>를, 이혜옥 회원이 10월 27일 경기도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우리말과 글의 특성>을, 그리고 전영우 고문이 28일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제 기간에 <화법과 인간관계>라는 특강을 진행했다.

여름방학 기간인 8월 4일 황인우 회원이 성신여자대학교, 8월 29일 박민정 회원이 숙명여자대학교 학교방송국원에게 화법훈련을 지도했으며, 박민정 회원은 9월 6일 둔촌1동주민센터 자녀학습지도 모임 회원을 대상으로 <자녀언어교육>을 강의한 데 이어 9월 19일에는 삼성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바른 언어표현> 특강 등 맞춤 강의를 펼쳤다.

또한 이규향 회원이 10월 11일과 13일

아나운서연합회, 문체부 NHN과 바른말 사용 MOU 체결

쉬운 말 쓰기, 품격 있는 우리말 사용 환경 조성 등에 앞장서기로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손범규(SBS 사인 왼쪽)회장은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최광식 장관, 네이버 김상현 사장과 함께 '바른 우리말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나운서연합회는 이들과 함께 앞으로 쉬운 말 쓰기 운동 전개, 품격 있는 우리말 사용 환경 조성, 정확한 발음 파일 구축 등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년/사



김동건
(사)한국아나운서클럽 회장

송구영신의 건배를!

올해는 클럽 회보 발간으로 한 단계 도약

2011년은 회보를 발간함으로써 '한국아나운서클럽'이 한 단계 도약한 해이다. 공중으로 흩어지는 방송을 하던 아나운서들이 회보를 만들어 기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기다리던 때가 엇그제 같다. 원로 선배님들을 취재할 때 늦게나마 별도로 녹화하며 방송 사료도 모으게 되었으니 의미 있는 발걸음이 아닐 수 없다. 편집진의 노고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며 다시금 회보를 들추어본다.

'선배가 잘해야 후배가 후광을 입고, 후배가 잘해야 선배가 보람을 얻는다. 잘 단합하고 열심히 참여하여 상부상조하면, 클럽의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황우겸 고문님의 기념사엔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언론이 민심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땐 두려울 게 없는 법'이라는 전용덕 고문님의 줄인 기사는 언론인의 사명감을 일깨워 주었다.

'선배가 잘해야 후광을 입고, 후배가 잘해야 보람을 얻는다'

원로 선배 취재 시 별도로 녹화하며 사료 모으고

더 많은 회원 참여해 이 소통의 장에서 행복과 보람 누렸으면

'언론이 민심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땐 두려울 게 없는 법'

'첫 방송 터 유희비'나 '항일단파방송연락운동 물망비' 기사를 통해 역사적인 사실을 더 정확히 알게 되었으며, 아나운서의 전통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헌신하신 선배님들 이야기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회원들의 동정과 추억담뿐만 아니라 현역들의 방송환경과 기부활동 등 다채로운 방송가 소식도 흥미롭다. 훌륭한 선·후배님들과 자랑스러운 현역들의 활약상에 절로 미소가 번지고 덩달아 고무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 보니 몇몇 사람만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사람들이 이 소통의 장에서 행복과 보람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올 12월은 종합편성채널의 개국으로 방송계에 변화가 많은 시기이다. 각기 다른 처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갈등과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가 있어 20대부터 80대에 이르는 아나운서들의 결속에 구심점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후배들이 선배들을 본보기 삼아 화합의 길로 나갈 수 있다면 오죽 좋으랴!

2012년에도 회원 여러분께 건강과 만사형통의 축복이 가득하기 바라며 '송구영신'의 건배를!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이웃돕기 골프대회 열려

선후배 어울려 골프
이웃돕기 성금 모금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주최한 '이웃돕기골프대회'가 전·현직 아나운서와 관계자 등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에서 펼쳐졌다.

지난 10월 15일(토) 아나운서 출신 유희 대표가 경영하는 경기도 파주 스마트KU골프파빌리온CC에서 열린 골프대회에서 최평웅, 김재익, 맹관영, 임주완, 이병혜 회원과 서기철(KBS), 홍은철(MBC), 배기완(SBS) 아나운서 등이 4팀으로 나누어 골프를 치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손범규, 최대현, 서기철, 홍은철, 배기완, 강현중(백산마케팅 과장), 이상근(SBS골프채널 이사), 김용수(서울문화M&B 대표), 김용명(한림대 교수), 허훈(SBS스포츠채널 PD), 최평웅, 임주완, 맹관영, 김재익, 이병혜, 유희 회원

며 친목을 다지고 연말 아나운서대회에 전달할 이웃돕기 성금을 모았다.

수필 7면 참조

'2011 한국아나운서 대상 시상식' 리뷰

선후배 어울려 한 해 마감하는 즐겁고 흐뭇한 잔치



손범규 연합회장 인사말, 옳은 일은 계속해 나갈 것, 내년에는 온라인 활동을 강화하겠다 차인태 클럽 부회장 축사, 아나운서 직분에 감사하라, 최선을 다하라, 마치는 날까지 자부심을 잃지 말라

'2011 한국아나운서 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제14대 손범규(SBS) 회장은 인사말에서 "옳은 일은 계속해 나가며 내년에는 온라인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한국어사전 발음 녹음 봉사와 친선골프대회에서 모은 성금을 '푸르메재단, 에덴복지재단, 경기도체육회, 수원 곡선중학교-탁구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각 방송사의 추천을 받아 그동안 유대관계를 맺고 공익사업을 벌여왔거나 함께 일할 단체들이다.

특히 올해 시상식은 수상자 모두에게 상금과 부상(골프스윙연습기)이 주어지며 한층 풍성한 잔치가 되었다. 포항에서 공무를 보느라 불참한 아나운서클럽 김동진 회장 대신 차인태 부회장은 무대에 올라 "아나운서라는 진실로 귀중한 직분에 감사하라, 최선을 다하라, 마치는 날까지 자



대상 시상식장에서 이계진, 김규홍, 임국희, 차인태 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수상을 축하하고 있다.

공동대표와 어린이재단(초록우산) 전북후원회 부회장도 맡고 있는 김진형 아나운서는 "퇴직을 1년 앞두고 과분한 상을 받아 조심스럽다. 앞으로도 지역에 깊은 애정을 갖고 묵묵히 방송현장을 지키는 지역 아나운서들에게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송으로 행복했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다.'라는 모비명을 쓰고 싶다."라고 말했다. 시사, 보도, 스포츠, 연예 등 모든 영역에서 매끄러운 진행 솜씨를 보여준 홍원기(OBS) 아나운서는 TV 진행상을 받으며 "이 상이 항암 치료 중인 아버지의 완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

조각가 최만린 고문이 제작한 상패를 수여해 소장가치를 드높인 '아나운서클럽상'(오른쪽)-2002년부터는 그 외 수상자에게도 최 고문이 제작한 상패(왼쪽)가 주어졌다. 정석문, 차미연 두 아나운서에게 시상하는 자리에서 임국희 부회장은 "선배들의 좋은 점을 이어받은 요즘 후배들은 재빠르고 혁신적이다. 훌륭하고 새로운 아나운서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라."라고 말하며 격려했다.

친근하고 소탈한 이미지로 오랫동안 <불만제로>와 <기분좋은 날>을 진행했던 이재용 아나운서는 2004년 장기범상 수상에 이어 올해 드디어 대상을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얼마 전 위암을 조기 발견해 수술을 받고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시상대에 오른 이 아나운서는 "시기가 절묘해서 더 기쁘다. 정말 받고 싶었던 상이었기에 수술 날짜도 조정했다."라고 소감을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대상 이재용(MBC)
"정말 받고 싶었던 상, 수술 날짜도 조정"
TV 진행상 홍원기(OBS)
"항암 치료 중인 아버지의 완쾌에 도움되길"
라디오 진행상 김성운(febc)
"방송으로 행복했다"란 모비명 쓰고 싶다"

한국어사전 발음 녹음 봉사·이웃돕기 골프대회로 모은 성금 푸르메재단 에덴복지재단 경기도체육회 수원 곡선중학교에 기부

단체상은 23년째 '방송언어연구회'를 운영해온 CBS 아나운서팀을 대표해 장주희 부장이 받았다. CBS 아나운서팀은 '말'의 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말'의 기능에 대한 라디오방송 SPOT <행복을 부르는 말 한마디>를 직접 제작해 공감대를 넓히고, 평소 방송하며 갖게 된 말에 대한 궁극증을 모아 매주 새로운 용어, 올바른 표현법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CBS 뉴스룸'이라는 사내 채널을 통해 현업 기자, PD에게 알려줌으로써 방송언어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방송제작과 진행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김성운(febc) 아나운서는 라디오 진행상을 받는 자리에서 "훗날 '방

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전문 방송인에게 주는 지역상은 "가을에 세상을 떠난 아버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말한 최영실(청주 CBS) 아나운서와 독일에서 지내고 있는 가족에게 감사를 표한 장영희(부산 febc) 아나운서가 받았다. 79년 입사 이래 뉴스와 스포츠를 담당하며 수준 높은 중계를 선보인 표영준(KBS) 아나운서는 스포츠캐스터상을 받고 "야구경기 8회 말에 역전 안타를 친 느낌."이라며 '야구캐스터의 꿈을 이루게 해준 선배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1991년 모범 아나운서에게 '선배가 주는 상'으로 시작, 이듬해 이름을 바꾸며

지역상 최영실(청주 CBS)
"가을에 세상을 떠난 아버님이 기뻐하실 것"
지역상 장영희(부산 febc)
"독일에서 지내고 있는 가족에게 감사"
장기범상 개인상 김진형(KBS 전주)
<파트를 전북> 제작·진행하며 건전한 여론 조성
장기범상 단체상 기독교방송(CBS) 아나운서팀
23년째 방송언어연구회운영, 라디오 SPOT 제작

김환(SBS), 최지해(OBS) 아나운서가 진행한 2부에서는 MBC 신입사원 김초롱, 김대호, 오승훈의 '아나운서도 가수다' 패러디쇼, OBS의 새 식구 강승화, 김소영의 멋진 노래와 춤이 펼쳐졌다. 첫 번째 경품추첨에서 이혜옥 회원이 SBS에서 협찬한 고급 위스키를 받았고, 마지막 1등 추첨에서 박찬숙 부회장의 사진작품 '목소리'가 MBC 하지는 아나운서에게 전달되는 등 선·후배 아나운서들이 한 해를 보내며 흐뭇한 시간을 보냈다.

스포츠 캐스터상 표영준(KBS)
"야구캐스터의 꿈을 이루게 해준 선배들 고마워"
부심을 잃지 말라."라고 축사를 한 후, 예년과 같이 후배들에게 후원금을 전했다. 시상식은 이계진 부회장이 출연한 1억 원의 기금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아나운서와 대외 방송인-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장기범상으로 시작되었다. 이계진 부회장이 시상자로 나선 가운데 개인상은 1978년 입사, 현재 <파트를 전북>을 제작·진행하며 건전한 여론을 조성한 김진형 KBS 전주방송총국 아나운서팀장이 수상했다. 아름다운가게 전주



이재용 김성운 김규홍 부회장과 홍원기 김진형 장주희 임국희 부회장과 정석문 표영준 최영실 장영희

SBS 정석문
전혀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 해보고 싶습니다



이계진 선배를 존경한다는 정석문 아나운서는 현재 '정석문의 섹션라디오, SBS 생활경제'를 진행하고 있다. 2001년 입사,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2005 'SBS 올해의 아나운서'로 뽑히기도 한 정석문 아나운서는 '말고 싶은 프로그램'을 묻자 "이제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TV, 라디오 프로그램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국민과 소통하고 싶다."라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2006년 스와질랜드의 어린이를 후원한 것을 계기로 월드비전과 인연을 맺은 정 아나운서는 올 6월 나눔교육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8월에는 청소년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몽골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나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수상 소식을 듣고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선배님들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후배는 아닌가보다 생각했다."는 정석문 아나운서는 앞으로 선배님들께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MBC 차미연
후배들이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차미연 아나운서는 아나운서클럽상을 받고 "선배님들 덕에 신뢰의 배낭을 메고 쉽게 걸어왔다면, 후배들이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무언가 보탬이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00년 1월 1일 MBC에 입사해 '손에 잡히는 경제'(2년), '문화사색'(5년), 'MBC뉴스'(8년 4개월) 등을 진행한 차 아나운서는 외국계 은행에 다닐 때, 모든 것은 사람에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난다는 생각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 아나운서 시험을 보았다고 한다. 취미, 특기가 '개봉영화 보기,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초급과정 마치고'로, 작년 12월부터 6개월간 미국 연수를 마친 후 2달 휴직을 연장해 Singularity대학에서 '기술을 이용한 융합'을 수학하고 얼마 전 현업에 복귀했다. '신뢰감은 생활 자체로 쌓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손석희 선배를 존경한다는 차 아나운서가 후배들에게 또 어떤 본보기가 될지 기대된다.



초대석 제5대 회장 박종세 고문

프로야구 못자리 고교야구 중흥 일군 야구 캐스터

격동기 현대사 주역으로 방송인생 40년



1935년생 / 1956년 KBS 입사 / 1964년 TBC 아나운서 실장. 1980년 방송대상 해설 부문상 / 2003년 제5대 아나운서클럽회장 2004년 회고록(방송, 야구 그리고 나의 삶) 출간 현재 서울여성재단 문영학원 이사장 - 필자 김준우 OBS 아나운서와 함께

80년대 초 KBS TV '사랑방중계' (원종배 아나운서 진행)를 즐겨봤었다. 그 프로그램 출연자 중 전택부 선생이 계셨는데, 박종세 고문님을 뵈는 순간 그 분이 떠올랐다. 따뜻한 미소와 밝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세상살이를 전해주시던 그 분처럼, 온화하신 선배님과 첫 만남부터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박종세 선배님께서 1956년 KBS에 입사, 64년 동양방송(TBC)이 개국하며 자리를 옮겨 아나운서 실장을 지냈고 방송통폐합 후 프로야구가 시작되면서 82년과 83년, 해태타이거즈의 단장 겸 대표를 맡아 83년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그 후 코레일 대표와 아시아컴 회장을 맡아 광고인으로 활동하셨다. 1980년 방송대상 해설 부문상을 수상했으며, 2004년에 회고록 '방송, 야구, 그리고 나의 삶' (나우박스)을 출간하셨다. 전국 500여 아나운서에게 일일이 손글씨로 서명을 해서 회고록을 보내주셨다는 참 자상한 박종세 선배님.

1935년생이지만 꾸준한 걷기운동과 골프로 건강을 유지하며, 2003년부터 2년간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제 5대 회장을 지낸 후 아나운서클럽의 고문으로서 최근에

아나운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송 할지 몰라 늘 철저히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야

5.16 혁명공약 첫 방송한 역사의 증인 대한뉴스 10년 국방뉴스 30년 진행한 베테랑

꾸준한 걷기와 골프로 노익장 과시 해태타이거즈 단장 아시아컴 회장 등 경력 다양

는 (사)한국방송인동우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아시아컴의 고문, 서울여성 재단인 문영학원 이사장으로 견재를 과시하고 계시다.

내가 야구 캐스터인지라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야구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박 선배님께서 1958년 장훈 선수가 출전했던 '한일고교야구친선전'으로 처음 야구중계를 하셨단다. 재미있는 것은 그 경기가 당시 야구장 개·보수공사 관계로 서울운동장 메인스타디움(축구장)에서 육상 허들을 외야 담장 삼아 열렸다는 것이다.

60년대로 넘어와선 당시 준결승과 결승만 다루던 고교야구대회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과감히 매일 중계를 도입한다. "방송사 내부를 설득하느라 참 힘들었지. 결국 대성공을 거두면서 임신근 선수로 대표되는 경북고를 필두로 영남 야구 붐이 먼저 일어난 거야."

이후 호남 야구의 인기가 영남 야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던 차 박 선배님은 71년 군산의 서해방송과 연계해 호남 야구 돌풍을 일으키는데, 그때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멤버들이 바로 김봉연, 김준환, 김일권 등이다. 이런 인연이 후일 해태 타이거즈 초대 단장 겸 대표로 영입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군산에 이어 광주에서도 전일방송과 연계해 광주일고의 활약을 생생히 전달하셨다. 특히 75년 대통령배 결승전, 김윤환 선수의 고교야구 최초 3연타석 홈런 중계 부분에서는 그때로 돌아간 듯 목소리 톤이 높아 지셨다. "그때는 고교야구하면 '박종세, 박종세' 했다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고교야구 중흥에 일조했다고 자부하지."

야구와 함께 선배님의 방송인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5.16 혁명공약 첫 방송이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



서울운동장에 야구장이 만들어지기 전인 1962년, 영터리 같은 고교야구대회 중계석(왼쪽부터 박종세 아나운서, 박준병 엔지니어, 최두현 아나운서도 보인다)

야기를 다 소개할 순 없지만,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당시 선배님의 목소리가 아닌 박정희 소장의 목소리였다면 연희송신소의 엔지니어가 송출 스위치를 내렸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랬다면 역사는 어떻게 변모했을까? 그렇게 선배님은 격동기 현대사의 주역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선배님께서 자부심을 갖고 계신 방송이 바로 58년부터 68년까지 한 '대한뉴스'와 67년부터 97년까지 무려 30년간 진행하신 '국방뉴스'이다. 1982년 방송을 접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국방뉴스'만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배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했다. "아나운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송을 하게 될지 몰라. 내가 5.16 첫 방송을 한 것처럼 늘 철저히 준비해서 실력과 소양을 닦아야지. 무엇보다 시·청취자가 보고, 듣고 싶어 하는 방송을 하는 것이 중요해. 특히 우리말과 뉴스를 중요시해야 다른 분야도 잘 할 수 있지." 그리고 출연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무척 중요한 덕목이라고 덧붙이셨다.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송과 삶의 방향이 잡히는 느낌이었고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다. 저녁 생방송을 한다는 까마득한 후배에게 간식을 챙겨주신, 친할아버지처럼 자상한 선배님의 정을 가슴에 담고 아쉽게 발걸음을 돌렸다. 김준우 OBS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육일회(六一會)

왜 이렇게 2개월의 세월이 녹장을 부리지!



왼쪽부터 김용문, 이규향, 홍기욱, 최승일, 엄복영, 이홍우, 이팔웅, 박정희

육일회는 1961년 3월, KBS 공개모집에 합격한 아나운서 동기생 모임이다. 당시 지원자 1500여 명 가운데 13명이 합격했다. 그동안 제각각 모이다가 김용문, 이규향, 홍기욱, 최승일, 엄복영, 이홍우, 이팔웅, 박정희(여) 등 8명이 올 봄부터 정식 모임을 만들어 두 달에 한 번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고 있다.

아나운서에서 대공과 PD로 방송생활을 한 후 관리직으로 옮겨 KBS 전주방송국장을 지낸 엄복영 회장을 필두로 KBS를 떠나 문화부 예술국장, 노르웨이와 프랑스 주재 공보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을 역임한 불어에 능통한 문화행정 전문가 김용문, 야구·유도·씨름 중계와 음성언어의 권위자로서 두 번이나 KBS 아나운서실

장을 지낸 이규향, 1958년에 <현대문학>으로 등단, 1970년까지 아나운서를 한 후 <여성중앙> 기자로 활동하다 박사학위를 받고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를 거쳐 지금도 선문대 강단에 서고 있는 팔방미인 박정희, KBS 남원방송국장, 사회교육국 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바른말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이팔웅, 방송심의실에서 퇴직한 과묵한 성격의 부처님 같은 이홍우, 세종문화회관 예술아카데미 전문위원 겸 사무국장으로 활약하는 홍기욱, MBC로 이적해 스포츠PD로 국장을 지낸 최승일이 육일회 친구들이다.

모이면 남산 시절의 에피소드, 젊은 날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운다. "만날 우리 모임이 기다려지는데, 왜 이렇게 2개월의 세월이 느리지?" 하고 얘기할 정도이다.

클럽회보 받고 반가워했다는 와병 중인 길종휘 13명 중 8명, 두 달에 한 번 명동서 점심 미팅 연락두절 유경희, 이원춘도 한데 어울렸으면

나이 들어 아름답던 추억을 반추해보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고 어느 누가 말했던가! 동기들은 하나하나가 남들이 흔히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이 있다는 것에 모두가 행복해 한다.

그러나 참여하지 못하는 동기생들이 있어 마음 한 구석 허전하다. TBC로 갔다가 통폐합 후 다시 만난 사람

61년 입사한 KBS 아나운서 동기생 모임

종기로 유명한 길종휘는 와병 중이고, 청초한 미녀 김정자(여)와 교육 후 청주로 발령 났던 이종석은 안타깝게도 이미 고인이 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둔 유경희(여)와 노래자랑 공개방송 <KBS 향연>을 진행했던 입담 좋은 이원춘은 소식이 끊겼다.

남양주에서 은거하고 있지만 클럽회보를 받고 무척 반가워했다는 길종휘가 건강을 되찾고, 이원춘, 유경희도 연락이 닿아 한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육일회 모임이며, 영원하라! 이팔웅(전 KBS,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사무국장)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 주스는 리필이 안 되시구요, 커피는 되세요.(X) → 주스는 리필이 안 되고, 커피는 됩니다.(O)
- 네 잔에 2만 원 되시겠습니까.(X) → 넉 잔에 2만 원입니다.(O)
-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요.(X) →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O)
- 중세가 보이시면 꼭 검사하시기 바랍니다.(X) → 중세가 보이면 꼭 검사하시기 바랍니다.(O)
- 저희나라 통계를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X) → 우리나라 통계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O)



방송가 소식

아나운서 재능기부로 빛난 부산국제영화제

귀로 듣는 화면해설영화 만들어 시각장애인들도 BIFF를 마음껏 즐겼다
자원봉사단체 <소리로 나누는 기쁨> 일명 '소나기' 결성해 봉사활동 계속



부산국제영화제 현장 생방송 중인 KNN 황범, 정유진 아나운서

지난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열린 16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선 시각장애인들도 BIFF를 마음껏 즐겼다. '귀로 듣는' 화면해설영화를 상영했기 때문이다. 부산민방 KNN, KBS 부산, 부산 MBC 등 부산지역 아나운서 9명이 재능기부에 앞장서 화면해설을 위한 음성녹음과 더빙작업에 한 몫을 해냈다.

지난해까지 서너 편에 불과했던 화면해설영화가 올해는 더욱 풍성해졌다. 박해일 감독의 '나비와 바다'를 비롯해 한국영화 7편, 외국영화 11편 등 18편으로

부산지역 3개 방송사 9명 아나운서 참여
KBS 차경애 김평래 장수연
손지민 오승원 MBC 안희성
KNN 황범 정희정 김보라

영화제에서 처음 시도한
시각장애인 영화 관람 서비스
방화 7편 외화 11편 등 18편 화면해설

대폭 늘어나면서 그만큼 녹음시간도 늘어났다. 3년차인 KNN 정희정 아나운서는 "입사 후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 영화장면의 길이에 비해 주어진 내레이션이 많아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부 아나운서들은 내레이

션은 물론이고, 주·조연배우의 목소리까지 번갈아내며 정성과 열정을 쏟았다.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장애인 전용관 개관식에서 배우 강수연은 "아무래도 연기는 배우가 잘할 테니 내년부터 화면 해설 작업에 참여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시각장애이용 화면해설과 음성번역은 매우 자상했다. 영상과 인물의 행동 묘사뿐만 아니라 영화 타이틀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뜨는지도 생생하게 알려줬다. 시각장애이용 FM수신기에선 발자국 소리 같은 음향이나 대사가 생생하게 들렸다.

최종숙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지원팀장은 '영화제에서 시각장애인이 외국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부산지역 아나운서들의 활동상을 널리 알려 아름다운 동참을 이끌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지역방송 3사는 각 사별로 관련 특집방송을 매일 제작해 내보내면서 아나운서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가을을 보냈다. 올해 완공된 아시아 영화의 메카 '영화의 전당'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세트에서 감독, 배우들과 함께했던 시간 역시 2011년 가을을 회상하는 추억의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큰 성과는 3사 지역 아나운서들을 포함해 이번 국제영화제에서 목소리를 기부했던 KNN 드라마 '웰컴투가오리' 출연진, 부산은행 이창열 부행장 등이 함께 뜻을 모아 일명 소나기, <소리로 나누는 기쁨>이란 자원봉사단체를 결성하고 친목과 우의를 나누기로 다짐했다는 것이다.

지역 아나운서들의 친근한 목소리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편안한 환경에서 영화를 즐기는 시각장애인들의 따뜻한 미소에서 '아나운서'라는 직업의 자부심을 다시금 느껴본다. 글 황범 KNN 아나운서



박찬숙 부회장의 사진전 '시선' 중에서 '신세계'



아나운서실 부장 및 팀장 인사, 신입 아나운서 지역 발령

11월 11일 행주산성서 체육대회

9월 19일 인사이동에서 김홍수 아나운서(12기)가 아나운서부장으로, 이규원 아나운서(14기)가 한국어연구부장으로 각각 발령받았다. 후속 인사로 아나운서부현업총괄 팀장에는 황수경 아나운서(19기)가 임명되었다.

또한 38기 아나운서들이 교육을 마치고 12월 1일자로 지역 발령을 받았다. 김민정, 한상현 아나운서가 부산, 이슬기 아나운서가 춘천, 정지원 아나운서가 청주, 조충현 아나운서가 전주에서 각각 방송을 시작함으로써 지역 KBS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1월 11일에는 아나운서실 체육대회가 행주산성 일원에서 펼쳐져 현업근무자를 제외한 90여 명의 아나운서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아나운서 전문화교육 2개월간 실시



아나운서 전문화 교육이 8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10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11:30~13:00) 아나운서 교육장에서 경제, 유머, 건강, 방송언어, 분장, 방송 환경 등을 주제로 본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박경희 아나운서 화법훈련서<최고의 아나운싱> 출간



KBS 최초의 여성 아나운서 실장이었던 박경희 아나운서(4기)가 <최고의 아나운싱>(프로네시스)을 출간했다.

1977년에 입사, 2008년 성균관대에서 언론학 박사를 취득한 박 아나운서가 35년간 방송을 하며 터득한 아나운싱 비법을 학문적, 실무적으로 총정리해 아나운서 지망생뿐 아니라 말하기 능력 향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REFRESHINGLY UNIQUE
Very cold but without ice

공식수입원 (주)CUC 02.755.5032



코이카협력부 신설, 코이카와 봉사자 선발부터 프로젝트 협업

안동서 코이카 워크샵

아나운서 1, 2부로 나뉘었던 아나운서국에 새로 코이카협력부(부장 김지은)가 만들어졌다. 고문에 조일수, 변창립, 홍은철, 그리고 출산 휴가를 마치고 10월 중순 복귀한 이정민, 박소현, 박혜진, 류수민, 김대호, 오승훈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

김지은 부장은 "아나운서국에 코이카협력부를 신설한 것은 방송사의 간판인 아나운서들이 대외 협력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0일 첫 방송한 <코이카의 꿈> 이후에도 세계 49개 개발도상국에 무상원조를 해주는 외교통상부 산하기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자원봉사자 선발부터 국외봉사활동을 책임지고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이카협력부는 11월 17, 18일 이틀간 아나운서 출신인 안동 MBC 이윤철



사장의 초대로 60, 70년대에 입사한 선배들과 함께 안동에서 코이카워크숍(사진)을 열었다. 김재철 사장을 비롯해 안동MBC 이윤철 사장, 김채영, 남궁미, 노영인, 박민정, 서은선, 안주희, 이연한, 이인숙, 임국희, 최운형, 최화숙, 박종순 등 선배들과 코이카협력부 후배들은 세미나와 하회마을 견학, 놀이마당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신입사원 공개채용 진행 중 5차 최종면접 거쳐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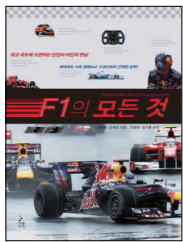
2011 신입사원 공채가 실시되고 있다.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원서 접수 후 11월 26, 27일 제1차 카메라테스트에 이어 12

월 5일 필기시험, 3차 역량면접, 4차 다면 심층면접, 5차 최종면접을 거쳐 신입 아나운서를 선발하게 된다.

강재형 아나운서 <F1의 모든 것> 출간, 자동차경주 베테랑 캐스터와 해설자 공저

15년 경력의 자동차경주 캐스터로서 해설자와 함께 포뮬러원 월드챔피언십(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 F1)의 안내서인 <F1의 모든 것>(강재형·김재호 공저, 기쁜 하늘)을 출간했다.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경주차와 모험을 즐기는 운전자의 세계, 개성이 넘치는 경주장 문



화는 물론 경기 규정과 대회 관전 요령까지 다루어 초보자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카레이싱 이야기>를 함께 펴낸 바 있다.



국립국어원과 방송언어공동연구발표회 개최

김소원 라디오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손범규 지상파방송 3사 스포츠 중계방송의 언어 사용

10월 12일(수) 국립국어원과 SBS 아나운서팀이 주최한 '방송언어공동연구발표회'에서 김소원, 손범규 아나운서가 각각 '라디오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과 '지상파방송 3사 스포츠 중계방송의 언어 사

용'에 대해 발표했다. SBS 아나운서팀은 지난 2005년 국립국어원과 협약을 맺고 한글날을 즈음해 '방송언어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회를 열고 있다.

야유회 대신 청각장애특수학교서 봉사활동, 앞으로도 계속해 사회공헌

10월 28일 평택 에바다 방문

10월 28일(금)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경기도 평택의 청각장애특수학교인 에바다학교를 방문, 탁구부 학생들과 탁구도치고 수화도 배우고, 초·중고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며 뜻 깊게 보냈다. SBS 아나운서팀은 앞으로도 야유회 대신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보낼 계획이다.



가을개편에 아나운서들이 비중 있는 프로그램 맡아

표준FM 이명희 박재홍의 싱싱싱 음악FM 최정원 제작·진행 어메이징그레이스

CBS는 다른 방송사보다 내부 아나운서의 진행 비중이 큰 편인데 11월 7일 가을개편에서도 아나운서들이 주요 프로그램에 기용되었다. 표준FM(서울 98.1MHz) 오후 4시~6시까지 방송되는 <싱싱싱>의 새로운 진행자로 이명희, 박재홍(사진) 아나운서가 발탁되었고, 한낮의 편안한 음악선택터 <음악풍경>은 해산을 하느라 잠시 마이크를 떠났던 유지수 아나운서가 맡았다. <좋은 아침>(06:10~07:00)은 김윤주, <주말시사자키>(토/06:00~08:00)는 최정원, <우리가 사는 세상>(일/07:00~08:00)

은 이지민 아나운서가 새롭게 맡았다. 음악FM(서울 93.9MHz) <12시에 만나다>의 새 안주인으로는 김필원 아나운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최정원 아나운서가 제작과 진행을 겸한다.



신임 부서장 유형서 아나운서 임명

가을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자 조정 11월 1일 인사 발령에 따라 이상희 부장에 이어 유형서 아나운서(사진)가 새롭게 아나운서팀을 이끌게 되었다. 유 팀장은 각 아나운서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아나운서팀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10월 31일 가을 개편에 맞추어 프로그램 진행자 조정도 있었다. 매일 새벽 6시, 활기찬 아침을 여는 <생방송 OBS> MC로 홍원기 아나운서가, 저녁 시간대(18:35~19:45) 주부들에게 맞춤 정보를 전하는 <베스트 70>은 유형서 아나운서

팀장이, 그날 있었던 스포츠 소식을 전하는 저녁 8시 <통쾌하다>는 스포츠 MC 김준우 아나운서가 맡았다.

12월은 연말연시 특집뿐만 아니라 12월 28일 개국 특집이 맞물려 있는 시기, 아나운서 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자 모든 아나운서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방송 내용 모아 2011년도 '우리말 고운말' 발간

tbs 아나운서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 '우리말 고운말' 2011년판이 12월 초에 발간되었다. '우리말 고운말'(10:48~10:50) 방송 내용을 정리해 해마다 책을 만들어 청취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tbs 아나운서의 커리큘쳐를 모아 표지에 실었다.



황금시간대 아나운서 집중 배치 신입사원 채용

TV 시사매거진 NOW 4부로 확대 개편

TV가 11월 7일, FM이 일주일 늦게 가을 개편을 단행했다. tbs TV는 <시사매거진 NOW>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2부 생방송 편성에서 정오와 오후 2시 생방송을 추가해 4부로 늘리고, 오전 10시에 정은길, 오후 2시는 원서호, 김두희 아나운서를 투입했다. 또한 tbs FM에서는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07:00~09:00), <황원찬의 오늘>(18:00~20:00) 등 황금시간대에 아나운서가 집중 배치했다.

지난 11월 1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신입사원 공채가 진행되어 3차 면접을 통해 12월 1일 전형운(남), 김혜지(여) 2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뽑힌 신입 아나운서는 내년 1월 1일 임용 예정이다.



여성사역자 연합 <아름다운 만남 찬양콘서트> 두 번째 공개방송 개최

창사 55주년을 맞아 '상심한 자를 위로하라'라는 주제로 수험생과 가족을 격려하고 중국선교사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공개방송 <아름다운 만남 찬양콘서트>를 개최했다.

김성운 아나운서 진행으로 11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일산 로고스교회에서 열린 콘서트에는 이정림, 송정미, 조수아, 남궁송옥, 동방현주 등 여성 찬양 사역자 30여 명이 출연해 12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다.



홀사모 돕기 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로 주최한 여성사역자 연합 <아름다운 만남 찬양콘서트>를 통해 어려운 형편의 김형진 사모에게 재할 치료비를 전달했다.



대림 개편에 따라 박용환 아나운서 진행의 <희망인터뷰 사람> 신설

11월 28일 평화방송 TV가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시기를 맞아 2011 대림 개편을 실시하면서 박용환(사진) 아나운서 진행의 <희망인터뷰 사람>을 매주 2회(월, 화 11:35분~11:50) 신설했다. 또한 연중기획 생명사랑특집 11월에는 숭고한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과 이식을 다룬 <나눔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김상규 연출, 김현주 진행)가 27일(일) 방송되었다.

그리고 육아 휴직 겸 출산 휴가에 들어갔던 김빛나 아나운서가 라디오 대표 가요 프로그램인 <한 낮의 가요선물>(12:15~14:00) 진행을 맡으며 방송에 복귀했다.



'고려대장경 조성 천년의 해' 관련 불교문화행사 생방송으로 중계

10월 5일 강릉MBC 사장을 지낸 이채원 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부임했다. '포교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경영 방침과 맞물려 BBS에서는 '고려대장경 조성 천년의 해' 관련 불교문화행사를 생방송으로 편성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BBS TV에서 10월 15일 남북이 공동으로 조성한 <평화대장경 해인사 장경판전 봉안법회>를 생중계

함으로써 장경각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11월 1일과 2일 이틀간 낙산사에서 열린 제14회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도 처음으로 생중계했다.





회원 동정

교통방송 tbs 본부장에 취임



성경환(전 MBC)

서울특별시 개방형 직위인 교통방송 본부장 공개 모집에 지원, 12월 19일부터 본부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성 회장은 1982년 입사, MBC 아나운서 국장을 거쳐 성공회대 겸임교수와 MBC 아카데미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SBS TV 신작 드라마 <내 딸 꽃님이> 출연 '트로트 보다 쉬운 재즈' 전국순회 콘서트 진행



오영실(전 KBS)

올해 7월 미국에서 갑상선암 치료를 마치고 귀국한 후 '오영실의 <트로트 보다 쉬운 재즈>' 공연 MC로 12월 3일 충남 아산 등 전국 13개 도시 순회 연주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또한 12월 14일 첫 방송된 SBS 일일 저녁드라마 <내 딸 꽃님이>에서 속 깊고 정 많은 아줌마 역을 맡고 있다.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석좌교수로 강의



차인태(전 MBC) 부회장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총장 정우택) 석좌교수로 초빙되어 다시 강단에 선다.

2009년 경기대를 정년퇴임한 차 부회장은 내년 봄 학기부터 연극예술학과, 한국어언어문화학과에서 음성언어를,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재단에서 10년 넘게 봉사한 경험을 토대로 강의하게 된다.

세 번째 저작 '아버지의 노래' 출간



김병래(전 KBS)

'아버지의 노래' (도서출판 다산)를 펴냈다. 6·25전쟁을 전후해 부모를 잃고 사고로 아들마저 떠나보낸 아픔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담았다.

1999년 글 모음집 '아나운서와 술', 2009년 시집 '떠남의 의미'에 이은 세 번째 저작이다. 현재 한국문학방송 부산, 울산, 경남 전문위원인 김 회장은 1969년 KBS 입사, 1976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 KBS에서 근무했다.

마포구 초등학교 직업체험교육 실시

박민정(전 MBC) 사무총장
황인우(전 KBS) 편집장



(사)한국아나운서클럽 박민정 사무총장(사진 위)과 황인우 편집장(사진 아래)이 서울 마포구 관내 마포초등학교와 아현초등학교 4, 5, 6학년 240여 명의 학생들에게 아나운서 직업체험교육을 실시했다.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90분간 13회에 걸쳐 진행된 마포청소년문화의 집 주관 '찾아가는 직업체험교육'에서 학생들은 '나도 아나운서-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교육을 통해 아나운서 직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바른 우리말을 익히는 기회를 가졌다.



부인에 이어 수필춘추에 수필가로 등단 커플 아나운서 커플수필가 탄생

이정부(전 KBS)

12월 6일 계간 수필춘추 주관 '2011 올해의 수필문학상 시상식'에서 부인과 함께 수필작가 등단패를 받았다.

이미 2권의 수필집을 발간한 부인 서금량(전 KBS) 회원이 지난 봄 등단한 데 이어, 이정부 회원(왼쪽)도 방송과 부인 간병의 힘든 일과에도 수필춘추 겨울호에 '천천히 빨리 오세요'를 출품, 심사를 통과했다.

시상식에 내빈으로 참석한 전영우 고문(오른쪽)은 커플 아나운서가 커플 수필가로 새롭게 탄생했다고 축하했다.



첫 번째 사진전 '시선' 개최

박찬숙(전 KBS) 부회장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 :

정희준, 김영소, 맹관영, 최만린, 황우경, 박찬숙, 박종세, 배덕환, 김승환, 정도영, 최평용, 이팔용, 김상준, 김규홍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관훈동 토포하우스에서 첫 사진전을 열었다. 세월과 함께 언제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겨 카메라를 잡은 후 5개월간 '물'을 주제로 매일 300번 넘게 셔터를 누르며 타인의 '시선'을 성찰하는 작업을 해왔다고 한다. 박 부회장의 첫 번째 사진전에 원로 아나운서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박찬숙 부회장은 작년 11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생방송되는 KTV '쟁점토론 터놓고 말합시다'의 진행을 맡고 있다.

제47회 전국여성대회 참석

김인숙(전 KBS)



11월 5일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47회 전국여성대회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한국우먼스클럽' 가입단체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동작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정 무료 합동결혼식 MC 봉사

최화숙(전 MBC)

박민정(전 MBC) 사무총장



2009년 9월부터 한국어 학당 교육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최화숙 회원(전 MBC)이 작년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서울 동작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1년 넘게 매주 금요일 2시간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박민정 사무총장은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10월 29일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해피 앤 라이트' 다문화가정 다섯 쌍 무료 합동결혼식의 사회를 보며 봉사했다.

MBC 표준FM(95.9Mhz) 창사 특집 'MBC와 나' 출연

최계환(전 MBC) 고문
임택근(전 MBC) 고문
임국희(전 MBC) 부회장
변용전(전 MBC) 수석부회장



MBC 표준FM(95.9Mhz) 'MBC 창사 50주년 특집, MBC와 나' (변창립 아나운서 진행)에 출연해 개국 초창기에 피소드를 들려주었다.

최계환 고문은 10월 24일 첫 방송에 초대 아나운서실장으로서 1961년 12월 2일 오전 6시에 MBC의 개국을 알렸던 이야기 등 초창기 아나운서들의 활약상을 전했다.

임택근 고문은 10월 25일 방송에서 'MBC 임택근의 모닝쇼' 진행 이야기와 반도조선아케이드 개소식에서 즉석으로 대통령 인터뷰를 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10월 26일에는 '심야 여성 DJ의 시초' 임국희 부회장이 출연해 1964년 당시 '한밤의 음악편지'가 높은 인기를 끌자 시중에 방송을 녹음한 불법 레코드와 동명의 책이 나돌았던 사실 등을 밝혔다.

11월 22일에는 변용전 수석 부회장이 '유쾌한 청백전', '명랑운동회'를 진행자로 활약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SBS TV '좋은 아침' 출연

농사일과 출판기념 산중음악회 소개

이계진(전 SBS) 부회장



11월 1일 SBS TV '좋은 아침'에 출연했다. 이 부회장은 방송에서 부인의 건강을 위해 15년 전 경기도 모처에 부부가 직접 설계한 집을 짓고 땅을 일구며 사는 근황과 인근 주민과 함께 퍼낸 '우리두 농부다' (웃기는 8인의 농부들 공동집, 문창) 출간 기념 산중 음악회를 소개했다.

알림

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기부금 내신 분>

한국여성아나운서클럽(김인숙, 장금자, 윤영중, 문복순, 민병연, 이현숙, 김경숙, 이연영, 김윤희, 이정희) 100만 원

2011년도 후원금 기탁자

최화숙 10만 원 성영미 100만 원
한선교 100만 원 이선미 50만 원
한국여성아나운서클럽 회원 일동 100만 원

축하합니다

최시중 (KBS) 11월 27일 치과의사와 혼인
심인보, 박소영 (KBS) 11월 5일 창원방송국 KBS 31기 동기끼리 혼인
박나림 (전 MBC) 1996년 입사, 작년 회사원과 혼인 후 10월 24일 득녀

조의를 표합니다

손상진(전 KBS) 11월 14일 부친상
원예중(전 DBS-KBS) 11월 9일 모친상
방원혁(전 KBS) 10월 23일 별세, 한림대병원에 시신 기증

수고하셨습니다

현옥 KBS 정년퇴직
김호준 MBC 정년퇴직



Zoom-in 사회적 기업 '동천' 대표 성선경 원장

아나운서에서 중증 장애인의 어머니로 30여 년 헌신

'제11회 비추미여성대상' 여성 문화·언론 및 공익 부문 달리상 수상



· 1939년생 · 64년 KBS 입사 · 65년 DBS 개국요원 74년 퇴직

지난 10월 28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최한 '제11회 비추미여성대상' 시상식에서 성선경(사회적 기업 '동천' 대표) 회원이 여성 문화·언론 및 공익 부문 달리상을 수상했다. 30년 넘게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 11월 24일 서울 하계동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동천'에서 성선경 원장을 만났다.

KBS 선배 이병열 아나운서와 혼인하며 동아방송으로 옮겨 시어머니 운영하던 영아원 맡으며 장애인 복지사업에 뛰어들어

2002년 장애인들이 만드는 모자업체 동천 설립
2007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

작년부터 흑자 올해도 주문량 밀려
장애 가진 직원들에게
상여금까지 줄 수 있어 기뻐

달리상 상금 3000만 원에 자비 보태
직원 주택 마련해 보람

하면서 동아방송(DBS)으로 옮겨 '여기는 동아방송입니다.' 라는 개국 멘트도 했지요.

그러다 아이를 낳은 뒤 74년에 그만두고 시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영아원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아에게는 정말 가정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모두 입양을 보내고 나니 발달장애아 7명이 남더군요. 사명이라 여기고 그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직장을 만든 것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문: 대표님께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 제가 아나운서였다는 것이 정말 뿌듯합니다. 방송 생활을 했다는 것이 좋은 추억이고, 그 시절이 제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을 할 때도 아나운서 경력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저를 인정해주는 아주 좋은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때가 그리우면서도 요즘 후배들의 패기와 정열을 보면 저는 준비가 너무 안됐던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목표를 갖고 꾸준히 노력해야 성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 끝으로 아나운서클럽 회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모임에도 자주 참여하고 인사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한 마음이 앞서네요. 이렇게 회보를 통해서라도 소식을 듣고 또 전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선배님들이 늘 존경스럽고 후배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마음만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기에 젊은 세대에게 이 일을 잘 넘겨준 다음 적극적으로 클럽 활동도 할 생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지적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유혜진 객원기자

문: 어려움도 있으셨겠지요?

답: 2년 전까지도 적자였습니다. 모자공장 견학 갔다가 17개의 단순 공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것을 보고 장애인들에게 적합하겠다 싶어 시작했는데, 모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문단을 위기도 서너 번 있었지요. 하지만 가족 같은 동천 학원 친구들을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가 모자에서 고급 모자 생산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연중 3개월간의 비수기에는 재생 카트리지를 사업을 진행해 작년에 매출 2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 직원들에게 상여금까지 줄 수 있어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문: 어떻게 해서 아나운서에서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 변신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화여대 4학년 1학기 때 친구 옷을 빌려 입고 시험장에 갔었는데 진짜 방송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KBS에 입사한 1964년 당시만 해도 여자 아나운서들끼리 서로 TV에 안 나간다고 도망을 쳤답니다. 사내에서 남편(이병열 전 KBS 아나운서)과 만나 혼인

문: 큰 상 받으신 것, 축하합니다!

답: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습니다. 역대 수상자를 보니 정말 유명 여성인사들이시더군요.

장애인빙상대회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한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활동, 복지법인 동천학원과 사회적 기업 동천 운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을 주신 것이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문: 사회적 기업 '동천'에 대해 소개해주시지요.

답: 2002년에 설립한 모자 제조업체로, 사회복지법인 '동천학교' 졸업생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재봉 교육을 시킨 것이 '동천'의 모태입니다. 2007년에 노동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저희는 거래처에 장애인기업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지 않습니다. 동정을 받는 것보다 품질로 승부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매출이 흑자로 돌아서서 요즘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내년 2월까지 주문이 꽉 찬 상태예요.

수필

소풍 전 날처럼 잠 설치며 기다렸던 골프대회



그 어느 날 나는 가장 반가운 소식 하나를 들었으니, 골프대회 참가 제의에 어렸을 적 개구쟁이 시절 소풍갈 생각에 잠 못 이루던 것과 마찬가지로 잠을 설치며 기다렸는데, 아! 기다리던 그날이 바로 다가온 것이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잔잔한 그날, 경기도 파주에 신설된 골프장을 향하여 내비게이션에 의지하여 찾아갈 때 많은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나를 설레게 하였다.

'지금 아나운서연합회 회장이 SBS의 손범규 아나운서라고 했던가? 그 옛날 1대 회장은 KBS 조춘제 선배, 2대 회장이 MBC 정경수 선배, 그리고 내가 3대 회장 있었는데, 지금은 몇 대쯤 되었는가? 이번에는 어떤 선배님들이 나오실까? 후배들은 누구일까?

예전 언제쯤이던가? 골프대회가 있었으니, 작고한 송인득 회장 시절 MBC 주관이었지. 임택근 선배님을 비롯해 박종세, 배덕환, 김동건, 정경수 선배님 등등 대선배님들 많이 참가하셨는데, 그 때 나는 니어리스트 상으로 드라이버 하나를 선물로 받았지.(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나도 이제 선배 축에 들던가? 이번 나의 조 편성은 맹관영,

최평웅, 김재익 선배라 하던데, 지금 실력은 어떠실까? 맹 선배는 그동안 많이 우승하셨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골프장에 도착하니, 아 내가 제일 먼저가 아니던가? 옷을 갈아입고 있으려니 역시 반갑고 친숙한 노장들이 두 번째로 당도하였다. 시끌벅적 즐거운 해후로 소란스런 가운데, 골프장 사장 첫 아나운서 출신 사장-곧 SBS 아나운서 국장 출신 유협 사장-그가 반갑게 우릴 맞아주었다.

그는 내가 한국 아나운서연합회 회장 시절 총무로 맹활약해

홍은철, 서기철, 배기완, 손범규, 최대현도 합류 맹선배 입담에 요절복통하며 선후배 우의다져

서 그때 그 감사함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이곳 사장이 되어 이렇게 만날 줄이야. 참으로 만감이 교차되었다. 알고 보니 이 골프장이 건국대학교에서 신축한 것으로 그가 동문들의 만장일치로 추대되어 제1대 사장이 된 것이다. 참으로 축하할 일이다.

간단히 요기를 하는 자리에서 나는 맹 선배에게 부탁 아닌 압력을 넣었다. 그것은 그동안 두 번씩이나 우승을 독차지하셨는데, 이번에는 나에게 양보를 해 달라고 말이다. 그런데 막상 경기에 임하니 다 저마다 포부와 욕심이 있는지라 점점 경기는 치열해지고 가열될 가는 것이다. 나도 처음엔 고전했는

데 그 때마다 선배들의 아량과 배려로 파 확률을 높여갈 수 있었고, 선배님들의 배려가 크셨기에 내가 우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결과는 내가 80타요, 맹선배가 82타였는데, 내가 압력을 가한 고로 선배가 양보하였음이라 생각한다.

폐일언하고 경기가 끝난 후 장소를 옮겨 한적한 전원마을, 시와 풍류가 흐르는 고즈넉한 전통 한식 요리집에서 식사를 하였다. 식사시간에 만난 그 정겨운 얼굴들, 회장 SBS 손범규를 비롯해 배기완, KBS의 서기철, MBC의 홍은철, 최대현 아나운서, KBS 출신 경기대 이병혜 교수와 우리 팀이 한데 어울려 웃음꽃 만발한 한때를 보냈다.

얼마나 정겹고 화기애애했던지, 앞으로 이런 모임에는 절대 빠지지 않겠노라 서로 다짐하고 헤어졌다. 주로 그 옛날 현역시절 방송에 얽힌 여러 실수담을 얘기하면서 요절복통, 기절초풍 하였는데, 그중에도 맹관영 선배의 입담은 단연 좌중을 압도하였다.

아무튼 나는 이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아나운서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누가 뭐라 해도 한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된다. 참으로 이번 골프대회는 내가 아나운서라는 것을 일깨워준 귀한 기회였음을 밝히며 앞으로 아나운서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임주완(전 MBC)
현 MBC 스포츠플러스 씨름캐스터



DIAMONDBANK

DIAMOND IS LUXURISE & DIAMOND IS INVESTMENT

다이아몬드 직수입 · 도매, 럭셔리 예물전문
신뢰와정직! 보석에 대한 모든것!

서울시 종로구 봉익동 10-1 디아망주얼리센터 104호 다이아몬드뱅크

무료상담전화 080-663-1111 & 직통전화 02-764-2277